◉ 학협회장 축사

한국지반공학회
회장 **천 병 식**

우리의 地平을 세계로 넓혀야 할 때

먼저 매년 분기별로 발행하는 **건설기술|쌍용**의 10주년 발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폭염으로 온 국민을 잠못이루게 하던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문턱에 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우리의 건설경기만은 바닥으로 치닫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근 수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더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건설경기의 침체일 것입니다. 건설투자가 한창 활발하던 1990년대 초에는 건설투자 비중이 GDP 25%까지 올라가기도 하였으나, 지난해에는 16.4%에 불과하였습니다. 올 1분기 민간소비와 수출이 늘었지만 GDP증가율이 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건설투자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건설공사 계약액이 줄고 건설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저하고 몸을 움츠리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와 같습니다.
기존의 연구인력 및 시설을 점검하고 산 · 학 · 연 연구 네트워크등의 구축을 통해 신기술 개발과 특허 출원등에 더 더욱 매진하여 기술력 향상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작년 말 국내의 유명 시공업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150Mpa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술을 실구조물에 적용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3년도에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개발하고 작년에서야 현장에 적용한 일본업체와 비교해 볼 때 토목기술 선진국이라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를 한층 줄이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기술로 인하여 200층(1000m)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구개발에 의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아 더욱 우리 토목기술자들은 우리의 지평을 한반도에 만족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넓혀 글로벌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위치에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건설인들은 R&D로부터 개발된 특화된 기술로 무장하여 세계무대로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우물안 개구리의 시각에서 벗어나 더 큰 개발 가능성과 기회의 땅인 외국의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7~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동남아시아의 신흥 강호로 부상하고 있는 베트남은 뛰어난 기술력을 확보한 국내 시공업체에 의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건설 한류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국형 주택이 현지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맡아 달라며 베트남 정부가 우리정부에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은 물론이거니와 세계의 요구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유연한 사고방식 또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나은 건설미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 **박 준 봉**

쌍용의 10주년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건설기술|쌍용**의 10주년 발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21세기 벽두부터 정보화란 거대한 흐름이 기존의 산업활동과 생활양식의 구조적인 변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순간이나마 외면하고서는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기약할 수 없는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설업계에서의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가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술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쌍용의 기술지는 더욱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리모델링이 21세기의 새로운 건설산업으로 자리잡고 동시에 건실한 국민주거문화와 새로운 건설문화가 정착되기에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리모델링 기술과 발전을 위해서 모든 건설업계가 적극적으로 수요창출과 국민의식개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고 이에 쌍용건설도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쌍용기술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회장 **김 상 식**

건설기술 검증의 필요성

Necessity for Construction Technology Verification

우리나라의 건설분야에도 이제는 많은 기술과 공법들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거나 국내에서 개발되어 현장 공사에 활용되고 있고 연구진을 갖춘 수준급의 연구소들도 여러 곳에 설립되어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주도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건설기술 개발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이루어야 할 일이고 이를 통하여 양질의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건설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건설기술의 개발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동반되어야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설기술은 비교적 개발 속도가 느리고 노동집약성과 시공 인력의 관습성 등의 특성을 포함하여 산업재해에 관련된 안전성과 환경친화성까지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의 선택과 적용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개발된 기술을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검증으로 그 기술을 뒷받침해야 됩니다. 또한 기술 검증은 개발된 기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공법이나 기술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쓰여온 공법에는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공법이 아니라는 단순한 이유로 폐기하는 것은 낭비이며, 검증하여 얻어진 기존 공법의 효율성을 신공법에 접목시키는 작업이 기술 개발과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산재하는 재래의 기술들과 개발된 기술들을 소중하게 수집하고 검증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일은 건설기술의 세계화와 정보화에 걸맞는 일이며, 신기술 개발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쌍용건설이 이제 40번째의 기술정보지를 발간하면서 그간의 우리나라 건설기술 개발을 선도해 온 업적을 높이 치하하고 앞으로는 기술 개발과 더불어 기술 검증에도 힘써 줄 것을 곁들여 당부하는 바입니다.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회장 **김 회 서**

발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건설업계의 메신저 '**건설기술|쌍용**' 의 발간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지가 10년 전에 탄생했을 때는 IMF사태라는 극한의 경제공황을 이내 맞이한 때였습니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건설경기는 곤두박질치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지만 본지는 쌍용건설 CEO의 선견지명으로 발간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으므로 의미 있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건축학은 종합 학문이며, 건설은 종합 예술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쌍용**' 의 향후 편집 방향은 건설 요소기술과 사내소식 게재 외에도 국내외 경쟁사의 동향, 미술, 디자인, 벤치마킹, 건설의 불루오션 분야, 건설경영학에 이르기까지 종합소식 제공지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해외의 유수 대형 건설회사의 형태를 보면 분야별 전문건설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의 대형 건설사는 종합적 수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환경에 의한 것이라 하겠으나 자칫하면 전문분야 시공기술 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경쟁은 국내외가 따로 없을 것이므로 향후 건설사의 경쟁력은 전문분야 특화된 기술력 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 시장 예측 방향도 본지가 제시하여 주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사에서는 FM(Facility Management)기법 도입도 필요한 때입니다 일본의 대형건설사인 竹中建設, 大成建設에서는 FM사업부를 두고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이 과거에는 시공, 하자보수라는 과정으로 마무리 지었으나 이젠 일정기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외에도 하자기간 이후의 입주자 크레임 발생 해결, 브랜드 관리, FM기법 설계시공 반영 등 사후관리 대처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FM의 다양한 기법으로 이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장인 FM업에도 진출해야할 것입니다. 국내 대형건설사중 일부 회사에서는 이 점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을 스카웃 한 건설연구소도 있습니다
쌍용건설은 그간 경영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화려한 영광을 간직한 유수 건설회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려움 없이 무궁한 발전을 하시길 기대하며, **건설기술|쌍용**의 창간 1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